

## → 동향브리핑

## 보급형 아이폰을 준비하는 애플

### I. Issue Summary

#### □ Key Summary

- 심심치 않게 등장하던 애플의 위기설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..
  - 애플은 실적 발표를 통해 2016년 회계연도 1분기(10~12월) 매출이 75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
  -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765억달러를 도달하지는 못했다.
  - 특히, 아이폰의 판매량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7550만대에 훨씬 못미치는 7480만대를 기록하며 중국발 스마트폰 위기설이 다시금 등장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.
  - 해당 수치는 0.4% 판매 성장률로 아이폰이 등장한 2007년 이후에 가장 부진한 성장세이다.
  - 많은 해외 매체들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출구전략이 없는 한, 이번 분기에는 역성장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  - 애플 주가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말까지 무려 19%에 달하는 낙폭을 기록했다. 2월 초 이후, 주가가 7.3% 뛰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회복치 못하고 있다.
- 애플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보급형 아이폰을 내놓은 바가 있다.
  - 고급화 전략으로 일관하던 애플은 2013년 9월에 아이폰 5C를 통해 보급형 시장에서의

가능성을 타진한 적이 있다.

- 그린, 화이트, 블루, 핑크, 옐로 등 5가지 화려한 색상으로 등장한 아이폰 5C는 기존 아이폰 이미지와 차별화되며 보급형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.
  - 하지만, 출고가가 6GB 모델이 549달러, 32GB 모델이 649달러로 책정이 되면서 중저가라고 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시장 포지셔닝을 하게 되었다.
  - 시장조사업체 씨아이알피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0~12월 미국의 아이폰 판매 중 아이폰 5S는 59%를 차지했지만 아이폰 5C는 27%에 불과했다.
  - 아이폰6와 아이폰6S가 발표된 지금까지 아이폰 6C는 등장하지 않으면서 애플 내부에서도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- 애플은 3월 21일(현지시간)에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인피니트 루프에 위치한 본사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.
- 업계 전문가들과 매체들은 이번 행사에서 애플이 아이폰 SE와 9.7인치 아이패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  - 아이폰 SE는 4인치임에도 불구하고 1200만화소 카메라와 A9프로세서,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등 아이폰 6S와 같은 내부 구성요소를 자랑할 것으로 예측된다.
  - 트위터에 유출된 개략도에 따르면 아이폰 SE는 곡선엣지와 살짝 튀어나온 카메라 등 외관도 아이폰 6S와 유사하다.
  - 3D 터치는 제외되었지만 터치ID, 4K 비디오 촬영, 라이브포토 등의 기능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- 아이폰 SE의 가격은 50만~60만원대로 추정되면서 중저가폰 시장과 프리미엄폰 시장의 중간 가격대를 공략할 것으로 추정된다.
- 프리미엄이 정체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에 기존 아이폰의 가격대를 낮춘 보급형 모델로 매출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.
  - 시장 전문가들과 보고서들은 애플이 4인치 보급형 단말을 내놓는다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는 분위기이다.
  - 포브스는 "애플은 4인치 화면의 아이폰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수요를 이끌 것"이라며 "작은 화면 신제품을 기다리던 기존 소비자들의

교체수요도 대거 끌어올 것"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.

- 투자은행 RBC의 애널리스트인 아미트 데리야나니는 보고서를 통해 "아이폰SE가 올해 1000만대 이상 팔릴 것이며, 이로 인해 애플이 총 55억 달러(6조 7400억원)의 판매 규모를 달성할 것"이라는 전망을 했다.
- 이러한 시장 분석 보고서들의 영향으로 실적 발표 후 하락하던 애플의 주가는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, 2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다.

## □ Source

- 애플, 13년 만에 역성장 위기..아이폰 신화 막내리나  
<http://www.newstomato.com/ReadNews.aspx?no=619469>
- 아이폰 5C가 남긴 미스터리  
<http://www.econovil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5616>
- 애플 아이폰 판매 'GOOD' 주가 날개  
<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160316000013>
- 역성장 방어용 '4인치 아이폰', 애플 다른 무기는?  
<http://www.mt.co.kr/view/mtview.php?type=1&no=2016031614233262031>
- 애플, 21일 보급형 아이폰 공개.....시장 반응은?  
<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603131457283453>
- 애플 새 보급형 아이폰 공개 눈앞갤럭시S7-G5 발목 잡을 수있을까  
<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60317000446>

## II. Issue Analysis & Commentary

-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기
  - 가트너에 의하면 2015년 4분기의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9.7% 증가한 4억300만대라고 한다.
  - 빠르게 성장하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달리 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의 성장률이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  - 시장이 전체적으로 정체인 이유는 선진 시장과 중국은 이미 포화인 상태이고 신흥 시

장을 위주로 판매가 형성되기 때문이다.

- 시장이 정체기를 맞으며 제조사들의 플래그십 모델이나 프리미엄 단말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.
- 중저가 위주로 판매되는 현상은 '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(ASP)'의 변화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-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ASP는 240달러로 지난해 247달러보다 2.8%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.

### ○ 애플은 진짜 위기인가

- 2015년말 기준으로 현금 보유액만 약 220조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대형 기업을 증권가의 보고서만으로 무조건 위기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.
- 최근들어 분기 실적 발표때마다 위기론이 대두되었으나 애플은 여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.
- 위기론의 핵심인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의 판매량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.
- 애플은 단순히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콘텐츠 생태계와 굳건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몰락을 할 것이라는 것은 억측에 가깝다.
-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하드웨어의 확산이 계속되어야 하며 신흥 국가의 초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에게 선점을 빼앗기는 것은 향후 성장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.

### ○ 시장의 흐름이 보급형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

- 루머와 같이 아이폰 SE가 발표가 된다면 애플이 4인치라는 작은 크기로 보급형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.
-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보고서대로 중국 제조사들의 저가형과 삼성, LG전자의 프리미엄 사이에 있는 애매한 위치로 성공할 수 있을런지는 조금 의문이다.
- 아이폰 5C의 실패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가격 때문이었다. 예상되는 아이폰 SE의 가격도 경쟁사의 플래그십 단말들과 10~20만원의 가격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.
- 선진 시장에서 학생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는 판매가 될 수 있겠지만 비용이 중요한 신

흥 시장에서는 여전히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이다.

- 전세계 사용자들도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 SE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.
- 이번 행사에 대한 나인투파이브맥의 사용자 조사에 의하면 17일 현재(한국시각), 아이패드 프로가 28.68%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아이폰 SE는 17.37%에 불과하다.

○ 국내에서의 성공도 미지수

- 애플의 정책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아이폰 SE가 국내 시장에 4월 중으로 출시가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다.
- 시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7, LG전자의 G5 등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.
- 국내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큰 화면을 선호하는 국내 사용자들의 취향을 고려한다면 4인치의 아이폰의 성공을 낙관하기란 쉽지 않다.
- 가장 중요한 가격면에서도 국내 제조사들의 완성도 높은 보급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비해 비싼 수준이라는 점이 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이유이다.
- 국내에서의 스마트폰 수요는 70만원대 이상의 프리미엄폰과 50만원대 미만의 중저가 폰으로 양극화 되어 있는데 아이폰 SE는 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하게 된다.

○ 향후 전망

- 루머와 더불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애플이 보급형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.
- 기존 프리미엄 아이폰과 가격 차이가 높지 않다면 많은 보고서들의 긍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.
- 선호 디스플레이 크기와 가격대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에서의 성적도 그리 긍정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들다.
- 하지만, 애플 페이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와 애플 워치, 각종 IoT와 연동되어 시장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애플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.